

서양화가 강록사씨, 고려불화 재현展

세계적으로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는 고려불화가 유화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세밀한 표현부분이 많음에도 굵은 필선의 유화로 불화를 그리는 것은 기존 불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이례적인 작업으로 주목되고 있다.

서양화가 강록사(89)씨가 5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끝에 완성한 '고려 불화재현전'이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내 서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고려불화가 자랑스런 우리문화임에도 대부분이 일본에 소장돼 있는 것에 대한 한을 풀고자 한 것이다.



◇강록사 화백

유화로 환생한 고려 불보살

강화백은 일본 사찰을 수차례씩 드나들며 원화 도판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열정이 넘치는 작업 과정과 함께 이번 전시가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고려불화를 유화로 그렸다는 것. 그림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이라면 고개를 가우뚱 할 수 있다. 어떻게 머리카락처럼 정교한 '사라(그물망으로 된 옷)'를 걸치고 있는 수월관음의 모습을 붓 터치가 굵은 유화로 표현할 수 있을까. 강화백은 이런 고민을 털어내기 위해 제일 가는 서예붓의 털을 모두 면도칼로 자른 다음 3~4 가닥만 남겨서 사용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100호 크기(높이 162cm)의 '수월관음'을 비롯해 '아미타여래', '아미타삼존', '아미타구

존', '지장보살' 등 28점의 불화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합장하게 된다. 아름다운 모습의 불보살들이 직접 살아있는 듯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함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고충도 많았다. 고회를 바라보는 노구에 수년동안 하루 10시간씩 매달리다 보니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 특히 정교함을 요하는 작업인지를 눈의 혹사가 가장 컸다. 또 고려불화가 대부분 7~8백년 이상 된 것들이어서 손상된 부분이 많아 자료조사를 통해 원화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상당부분 필요했다. 그러나 창작한 그림도 두 점 들어왔다. '백의 관음' 왼쪽에 <반야심경>을 사경한

'수월관음' 등 28점 선보여

것이나, 아미타삼존중 양유관음의 모습에 반해 따로 떼어 그린 것은 강화백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강록사 화백은 "보통 고려불화의 원화는 수성이 강한 석재를 사용해 습기에 약한 반면 유화는 기름성분이기 때문에 보존과 관리가 쉬워 그리기는 까다롭지만 수명이 훨씬 길다"며 "이런 유화적 질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습기 때문에 힘든 작업이지만 후손들에게 오랫동안 남기기 위해 도전해 보고 싶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강화백은 "가장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부처님의 얼굴을 점안할때"라며 "자비로운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반야심경>봉독을 하는 등 작업하기 전에 나름대로 점안식을 올렸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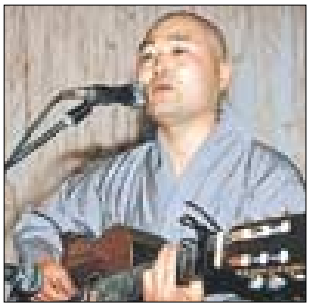
산사음악회 두 곳서 열려

고성 운흥사 4일, 해남 미황사 26일

경남 고성 운흥사는 4일 오후 2시 큰마당에서 국악인 손심심, 김준호 부부를 초청해 '우리소리 한마당'을 펼친다. '한오백년'을 비롯한 민요와 찬불가를 부른다.

산사음악회 전에는 성덕스님(중요 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자)이 출연해 영산재 의식인 괘불이운을 한다. (055)835-8656

전남 해남 미황사는 26일 밤 8시부터 범능 스님의 산사콘서트를 연다. 3집 음반인 '삼경에 피는 꽃' 출시 기념으로 기획된 이번 음악회에서 범능 스님은 '나무아미타불', '오월의 꽃' 등을 부른다. 이외에도 도종환 시인이 찬조출연해 시낭송을 한다. 공연이 끝나는 밤 10시부터는 범



◇범능스님

능스님과 차 한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장소 관계로 이 다담(茶談) 프로그램은 스님의 홈페이지(www.buleum.pe.kr)를 통해 선착순으로 150명만 신청받는다. 콘서트만 볼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061)533-3521

문화소식

'보리울의 여름' 시사회

전주서, 월주스님등 참석

김제 금산사와 금산면 일대에서 촬영한 영화 '보리울의 여름'(감독 이민용) 시사회가 3월 25일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전주 영상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시사회에는 송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금산사 스님 20명을 비롯해 이민용 감독, 장미희, 차인표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보리울의 여름'은 25일 전국 1백여개 스크린을 통해 개봉한다.

만해 한용운스님 생애

만화로 제작 인터넷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애를 그린 만화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처장 안주섭)는 3월 25일 만해 스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10명의 생애를 담은 만화를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go.kr)에 올렸다.

'만화로 만나는 독립운동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김구, 김좌진, 안중근, 안창호 선생 등 독립운동에 앞장선 10명의 생애를 20여쪽 분량으로 쉽고 재미있게 담고 있다. 특히 만해 스님을 그린 만화 '어둠을 밝힌 민족의 등불'은 '오세호 프로젝트'가 제작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 만화를 4월 초 대한독립일시정부수립기념일에 맞춰 단행본으로도 펴낼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강록사 화백의 '수월관음' (162×106cm). 머리카락처럼 정교한 '사라'가 돋보인다.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bin 불교텔레비전 <ch 32>
08:00 BBS 뉴스광장	2일 09:30 bin생활문화강좌 '화(花)'
11:10 행복스튜디오, 황정원입니다	3일 22:10 한국의 명찰
14:45 고승열전	4일 07:30 송강스님의 기초교리강좌
18:15 유쾌한 저녁 길	5일 07:40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
22:05 영화음악실	6일 12:10 구분일의 명상태교
하이라이트	7일 09:30 생활건강백과 오행생식

■**불교방송**: △불교문화산책(4월 2일 23:05) - 창작찬불가 '붓다' 등 주옥같은 불교음악을 작곡한 중앙대학교 국악학과 박범훈 교수가 출연해 용성스님, 운문스님 등 스님들이 주도한 찬불가 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불교텔레비전**: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4월 5일 07:40) - 식목일 특집 프로그램. 국민의 95%가 불교신자이며 산림의 28%만 남아있는 태국. 그곳에는 16년간 마을주민들에게 자연보호를 가르치는 프라프라작 스님과 프라마하찬 스님이 있다. 직접 나무를 키우고 나무그루터기를 되살리는 두 스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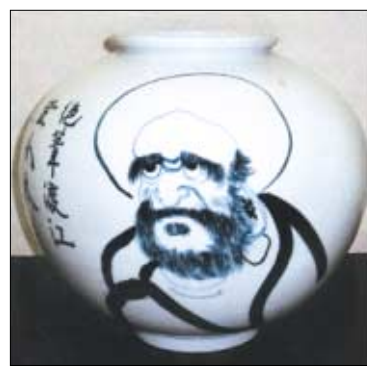
경암스님 선사화도예전

7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경암스님(위싱턴 보림사 주지)의 선사화 도예전이 7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스님의 작품은 모두 도자기 위에 펼쳐져 있다. 달마도를 비롯해 부처님, 연꽃, 매화, 코끼리, 난초 등 다양하다. 그림뿐만 아니라 <반야심경> 사경과 '불(佛)', '육바라밀', '선시' 등의 글씨도 있다. 모두 합해 100여점이 넘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 서옹스님(백양사 고불종림 방장)의 글이 담긴 8폭 병풍과 석주 스님(칠보사 조실)의 <반야심경> 8폭 병풍, 중광스님의 '학' 등도 함께 선보인다.

경암 스님은 "부처님말씀과 불교의 세계를 도자기 위에 표현함으로써



◇달마선사를 그린 도자기.

써 선국의 경지를 펼쳐 보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일보사 2층 부일갤러리(13~19일), 대전 시민회관 전시실(24일~5월 2일), 제주 신산갤러리(5월 27일~6월 2일) 순으로 진행된다. (016)9377-7797

휴관에 '육·색·무색천' 표현

10~15일 日 후쿠오카 한승구展



◇한승구씨의 '육·색·무색천'.

부산출신의 불화가 한승구씨가 10일부터 1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아시안 갤러리에서 '육(欲)·색(色)·무색천(無色天)'을 주제로 개인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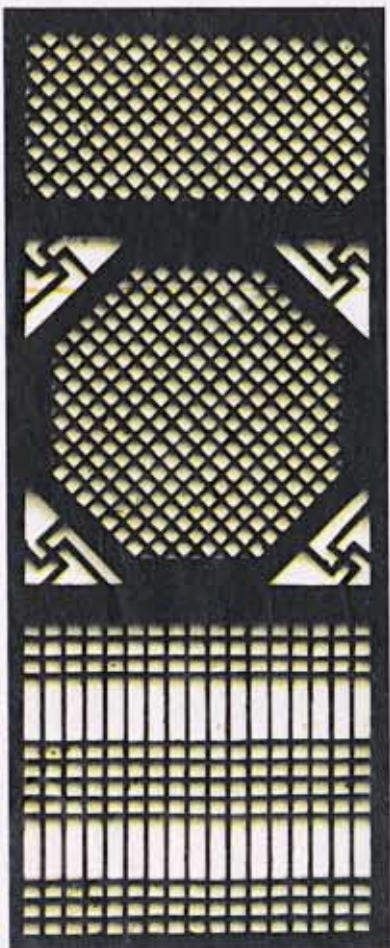
연다. 이번 일본 나들이에서는 육계, 색계, 무색계 등 삼계를 표현한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여기에는 비로자나불도,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도도 함께 벽에 걸린다.

한씨의 작품이 다른 불화와 틀린 점은 흠으로 만든 화판에다 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채색이 곱지 못하고 거칠어 벽화의 느낌마저 든다. 이번 전시작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동일한 구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육계와 무색계의 중간적 단계인 색계를 그림 중앙의 네모안에 표현했다. 또 화면 맨 위는 물음 등 모든 것로부터 자유로워진 무색계를 그렸다. 후쿠오카 아시안 갤러리 (092)263-1100.

무궁무진한 우리 전통문양을 집대성한 한국의美 『무늬』

사진·안장현 / 글·이기선



문화재 사진작가 「안장현」의 섬세한 영상과 불교조형연구소 소장인 「이기선」의 유려한 예술이 돋보이는 한국무늬의 집대성

무늬에 관한 책이라면 지금까지는 무늬를 그림으로 옮겨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책은 무늬가 배워진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원형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그야말로 조금도 변형되지 않은 무늬의 원형적인 책이다. 오늘날 각종 산업과 문화는 디자인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전통문화를 응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따라서 이 책은 미술사가들은 물론 종교인, 디자이너, 문화 애호가들에게 단비 같은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일일이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원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특징

- 1) 무늬를 있는 그대로 살린 원색 사진
- 2) 충실한 자료는 답사와 연구의 길라잡이
- 3) 258페이지에 수록한 총 308컷의 풍부한 도판
- 4) 최대한 한글화한 무늬 용어
- 5) 쉽게 풀이한 무늬의 발생과 상징성

4X6 변형배판 스노우 화이트, 총256쪽
정가 28,000원



저승길을 가며 타는 꽃기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리는 호사가 아닌가. 더구나 무덤 가를 지키고 있는 망주석이나 장명등에도 무늬는 배어들어 있다. 이렇듯 무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인다.

- 저자의 말 중에서 -

문양 작품들에 담긴 선조들의 정인 혼을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역시 정인의 정신으로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통해 일치시키고자 했던 저자들의 노고가 잘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의 전통 무늬에 깃들여 있는 창조적 정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새로운 무늬의 창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이 책이 출간됨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해맑게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오원배(동국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호영출판사 TEL 02-3442-5131 FAX 02-511-1882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